**제임스 S. 스피겔 박사, 기독교 윤리 , 세션 17,
마약 합법화**

© 2024 Jim Spiegel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기독교 윤리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제임스 스피겔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7, 약물 합법화입니다.

좋아요, 다음 호는 약물 합법화입니다.

마리화나, 코카인, 크리스탈 메스, LSD, 헤로인과 같은 약물의 사용을 미국에서 합법화해야 할까요? 소위 마약 전쟁의 역사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봅시다. 1969년 마약 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최초의 포괄적인 연방 노력을 시행할 때 처음으로 이 용어를 사용한 사람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었습니다. 1988년 레이건 대통령은 국가 마약 통제 정책 사무소를 만들었고, 담당하는 소위 마약 차르는 1993년 빌 클린턴에 의해 내각 직위로 승진했습니다.

수천만 달러, 연방 달러가 매년 마약과의 전쟁에 단속 및 교육과 관련하여 사용됩니다. 다음은 마약 관련 범죄 수치 중 일부입니다. 2015년에 미국에서 약 150만 건의 마약 체포가 있었습니다. 그 범죄자의 약 3분의 1이 수감되었습니다.

그 해 마약 체포의 약 40%가 마리화나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2016년 현재, 미국 교도소에는 총 220만 명의 수감자 중 약 45만 명의 마약 범죄자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미국 수감자 중 마약 범죄자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올해 2020년 현재, 오락용 마리화나 사용은 약 12개 주에서 합법화되었습니다. 알래스카,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일리노이, 메인, 매사추세츠, 미시간, 네바다, 오리건, 버몬트, 워싱턴, 그리고 컬럼비아 특별구.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은 다른 23개 주에서 합법입니다.

여기 마리화나의 오락적 사용이 합법적인 곳, 짙은 녹색으로 표시된 주, 의료용 마리화나가 합법적인 밝은 녹색 주를 보여주는 지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 하드 드럭의 합법화 문제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특히 암페타민과 마약과 같은 신체적으로 중독성이 있는 약물과 신체적으로 중독성이 없지만 하드 드럭으로 간주되는 약물을 의미합니다.

실로시빈과 LSD 같은 환각제. 그럼, 그게 어때요? 하드 드럭도 합법화하는 게 적절한 조치일까요? 위대한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모든 오락용 약물의 합법화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에 대한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그의 견해에 따르면 합법화는 마약 테러를 줄일 것입니다. 불법은 암시장을 조장하고 , 마약상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주고, 온갖 폭력이 그것과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불법은 아이러니하게도 금지된 과일 효과라는 것을 통해 마약 사용을 조장합니다. 금지되고 불법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매력적입니다.

이 약물들을 합법화하면 그것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셋째, 프리드먼은 합법화가 절도와 살인과 같은 약물 관련 범죄를 줄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합법화는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약물을 원하는 사람들은 약물을 얻기 위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합법화는 수십억 달러를 절약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정부는 매년 수십억 달러를 마약과의 전쟁에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프리드먼의 합법화 주장입니다. 윌리엄 베넷은 마약 합법화에 반대하는 여러 주장을 했습니다.

베넷은 제 생각에 미국 행정부에서 최초의 마약 차르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합법화가 마약 남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비교를 통해 30년대 초 금지령이 폐지된 후 알코올 소비가 약 350% 증가했다고 지적합니다.

합법화는 불법적인 지하 마약 시장을 없애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합법화와 함께 담배의 경우처럼 불법 마약의 가격, 판매 가격을 부풀릴 매우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담배와 같은 합법적인 상품에 관해서도 암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다양한 매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싸게 팔려는 인센티브입니다.

담배 한 갑에 5달러 정도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담배를 훨씬 싸게 파는 암시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품이 불법이더라도 세금이 충분히 부과된다면 여전히 지하 시장을 가질 수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강력한 약물이 합법화되었다고 해서 제거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는 또한 합법화가 마약 관련 범죄를 종식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가격이 너무 부풀려지고 사람들이 크리스탈 메스와 아편과 같은 약물에 중독되면서 이러한 약물을 얻기 위해 필사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살 돈이 없다면, 그들은 폭력과 절도에 의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베넷은 결국 합법화로 인한 실질적인 재정적 이득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단속 비용이 감소하더라도 마약 사용이 증가할 것이고, 따라서 마약 관련 범죄가 증가하거나 적어도 그만큼, 아니 그 이상 증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넷에 따르면 중독이 있는 사람들을 다루는 데 사용될 정부 기금도 급증할 것입니다. 또 다른 합법화 찬성 학자는 나델만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단속 활동이 마약 거래와 마약 남용을 통제하는 데 거의 효과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잃어버린 대의이기 때문에 그의 관점에서는 기본적으로 무익한 노력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돈을 아끼고 합법화하고 규제하는 게 낫습니다. 그는 마리화나와 아편은 거의 어디서나 재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프리드먼이 하는 주장과 비슷하지만, 그는 또한 마약 단속법이 실제로 적절한 대상인 딜러보다 사용자에게 더 큰 해를 끼친다고 주장합니다.

Nadelman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잘못 전달된 것입니다. James Q. Wilson은 다시 William Bennett의 주장과 다소 겹치는 반합법화 주장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합법화가 마약 남용의 폭발을 일으킬 것이고, 모든 상품의 가격을 95% 인하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베넷이 하는 주장과 비슷한 주장이지만, 윌슨은 마약 남용 자체가 피해자 없는 범죄가 아니라고 덧붙입니다. 합법화 지지자들이 종종 주장하는 것처럼, 중독자의 자녀와 배우자는 마약 남용으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우리는 그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주장, 찬반입니다. 저는 지금 팀 샤우라는 젊은 기독교 윤리학자의 주장에 대해 조금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는 마리화나 합법화에 반대하는 다소 혁신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가 특히 자유주의자들조차 마리화나 금지를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리화나의 합법화는 일종의 고전적 자유주의적 입장입니다. 그들은 조직된 사회와 일치하는 한 자유를 극대화하고자 하며, 따라서 일반적으로 자유주의자들은 다른 약물은 아니더라도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따라서 자유주의는 정부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사람들을 강요하는 것만이 정당하다는 견해입니다.

정부는 사람들을 스스로로부터 보호하는 사업에 종사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자유주의자들은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자유주의 관점에서 마리화나 합법화라는 아이디어가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샤우는 마리화나 합법화를 정당화하기 위해 자유를 호소하는 것은 스스로를 해치는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왜? 글쎄요, 마리화나는 사람의 일관된 사고 능력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운 상태이기는 하지만, 사람들을 제정신에서 벗어나게 하는 취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샤우가 말했듯이, 국가는 이러한 사고 조건을 일관되게 손상시키거나 파괴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좌절시키는 물질을 제한하는 데 관심이 있으며, 여기에는 마리화나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샤우의 전체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전제가 있으며, 국가는 마리화나 사용을 제한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으로 결론지어집니다.

첫 번째 전제는 국가의 핵심 책임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개인의 행위는 합리성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할 능력이 없다면 진정으로 자율적이고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개인적 행위는 이것에 달려 있습니다. 셋째, 합리적 사고에는 적절한 인지 기능이 필요합니다.

인지적으로 기능하지 않는다면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넷째, 마리화나는 인지 기능을 방해하고, 따라서 합리적 사고를 훼손합니다. 따라서 국가는 마리화나 사용을 제한할 책임이 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주장입니다. 샤우는 이 주장에 대한 여러 가지 반대 의견에 답합니다. 그러한 반대 의견 중 하나는 자유주의자들이 국가가 제3자의 강압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데만 정당하다고 주장하지만 마리화나 사용은 이기적인 행위이므로 강압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에 대한 샤우의 답변은 사람이 마리화나를 사용할 때 중독성 약물 자체가 위협적인 제3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러한 약물의 사용을 자신을 노예로 파는 것, 인지적 노예로 파는 것에 비유합니다. 그것은 자유주의자조차도 "아니, 부적절해"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극대화하고 싶어하며, 비록 자신을 노예로 파는 것이 결정이기는 하지만 개인의 자율성과 자유를 너무 침해하기 때문에 불법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의 결정일 수 있습니다.

자살에 대해서도 비슷한 자유주의적 주장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자유로운 행위일 수 있지만, 모든 자유를 취소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자유로운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샤우가 고려하는 또 다른 반대 의견은 그의 추론이 정부가 시민으로서 우리의 적절한 기능을 손상시키는 건강에 해로운 음식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건강에 해로운 음식은 매우 지방이 많은 음식이 많고, 일반적으로 건강의 관점에서 건강에 해롭고, 잘 생각하는 능력도 포함합니다.

이에 대한 샤우의 답변은 건강에 해로운 음식이 사람의 사고력이나 추론 능력을 직접적으로 저하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강에 해로운 음식과 달리 마리화나의 주된 목적은 인지 기능을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대마초를 피우는 이유이며, 자신과 인지 기능을 손상된 방식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샤우의 주장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또 다른 반대 의견은 국가가 이런 약물을 제한할 의무가 있다면 인지를 훼손하는 특정 사상을 불법화할 의무도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을 타락시키는 나쁜 철학과 나쁜 이념이 많이 있습니다. 30년 가까이 학계에서 일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런 일을 많이 보았습니다.

모든 학자,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똑같은 말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사상과 이념이 인지를 손상시킬 수 있고, 그것이 특정 자유를 금지하는 근거라면, 샤우의 추론은 우리가 특정 사상을 불법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그의 주장의 일종의 터무니없는 결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샤우의 답변은 국가는 자신의 신념을 선택할 자유에 필요한 조건을 보호하는 데만 관심이 있고, 그 신념의 내용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은 임시방편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분명히 합리적인 구분입니다. 또 다른 반대 의견은 샤우의 주장이 국가가 알코올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또한 취하게 하는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환원, 즉 터무니없는 것으로의 환원일 수 있는데, 왜냐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알코올이 불법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의 답변은 알코올이 취하게 하는 물질일 수 있지만, 종종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적어도 취하게 하는 물질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윤활제로서, 말했듯이, 어떤 사람들은 와인 한 잔을 마셨다면 사려 깊고 유익한 아이디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더 있다고 합리적으로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요점은 알코올을 마실 때 반드시 인지 상태를 바꿀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요점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술과 좋은 요리를 즐기는 데는 미적 가치가 있습니다. 와인 한 잔이나 맥주 한 잔으로 마리화나를 옹호하는 주장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리퍼 담배나 봉 히트의 미적 특성을 극찬하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그들은 거기에 있을 거야. 나는 그런 주장을 들어본 적이 없어. 변호하기 힘든 일이겠지.

하지만 술의 세계, 특히 와인, 맥주, 위스키 등의 세계에서는 분명히 미적 차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샤오의 주장에 대한 제 보충 설명입니다. 그는 그것에 공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의 주요 요점은 취하지 않고도 다른 이유로 술을 마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화나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점은 취한다는 것입니다.

글쎄요,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은 어떨까요? 이제 마리화나의 합법적이고 구원적인 적용 또는 사용이 있는 듯합니다. 이에 대한 샤오의 답변은 합법적인 의료적 필요에 마리화나를 처방하는 것은 적절하지만 다른 의약품이나 약물과 마찬가지로 규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마리화나에 대한 의료적 필요성은 생각보다 드물다고 덧붙입니다.

그래도 그는 특정 의료적 용도로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의향이 있지만,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수년간 학생들이 약물 사용의 도덕성에 대해 질문했을 때 제가 한 몇 가지 관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리화나가 합법적인 경우, 또는 다른 약물이 합법적인 경우, 어떤 경우든 사람이 그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적절할까요 ? 특히 기독교 신학적 관점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맥락에서 제가 주목하는 것 중 하나는 바울의 관찰, 사도 바울의 관찰, 즉 몸은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신성한 것입니다. 저는 낸시 피어시의 최근 저서 Love Thy Body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 책은 적용 범위가 있습니다. 그녀의 그 책에 대한 논제는 이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문제에 적용 범위가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소중하고 신성한 것이고, 당신의 몸을 존중한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몸에 넣는 것, 그리고 당신이 피우는 것 또는 복용하는 약물뿐만 아니라 당신이 먹는 것과 얼마나 많은 운동을 하는지는 신에 대한 당신의 존경심을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나는 약물을 복용함으로써 나의 몸, 성령의 성전을 오염시키고 싶은가? 다른 사람이 한 적이 없는 또 다른 중요한 주장은 게으름의 문제인데, 특히 마리화나와 관련된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 몇 년 동안 마약 암흑가에 연루되었던 사람으로서, 이것을 직접 보았고, 제 삶에서도 이를 목격했습니다. 저는 규칙적으로 하이를 하고 거의 매일 대마초를 피우는 데 열중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 누구도 특별히 근면한 사람들이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창의적이지 않았고, 특별히 혁신적이지도 않았고, 건설적인 일을 하는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게 보편적으로 사실인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제게 폴 매카트니는 어때요?라고 지적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폴 매카트니는 그의 프로 경력 대부분 동안 반대했습니다. 매카트니는 잘 알려진 대로 대마초를 피웠고, 저는 가끔 냉소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최근에 그의 가사를 보셨나요?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많은 음악을 제작하고 있을지 몰라도, 얼마나 좋은가요? 저는 비틀즈와 매카트니 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게 미안하지만, 그가 대마초를 피우지 않았다면 수년 동안 얼마나 더 혁신적이고 창의적이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에 반하는 가설의 오류를 저지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반사실적 상황이 무엇인지, 완전히 술을 끊고 마리화나를 피우지 않는 폴 매카트니가 70년대와 80년대에 무엇을 했을지 모릅니다. 가사적, 그렇지 않으면 작곡적 관점에서 말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만성 마리화나 사용자들 사이에서 제가 알아차린 관찰입니다.

그것은 게으름, 나태함, 근면함의 부족과 잘 연관되어 있는 듯합니다. 또한 약물 사용이 자기 몰입을 조장한다는 주장도 나르시시즘에서 나온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고방식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것은 모두 내 정신 상태와 내 정신 상태를 바꾸는 것, 내가 취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내 일상 생활을 지배하는 고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은 그런 종류의 자기 몰입적 태도, 일종의 나르시시즘을 조장합니다.

그리고 무법 상태에서의 주장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사람이 냄비를 피우거나 다른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 불법인 맥락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 맥락에서 그것을 한다면, 당신은 중범죄, 적어도 경범죄에 연루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일상적으로 법을 어기고 양심을 마비시키는 방법으로, 그리고 다시 한번, 제 경험에서, 제가 냄비를 정기적으로 피우는 사람이 되었을 때, 제가 법을 어긴다는 것을 알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게 저를 경찰을 적대시하는 마음 상태로 만들었고, 경찰을 돼지라고 부른 적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다른 행동으로 넘어간 적도 기억납니다. 당시 십 대였던 저에게는 그게 떠올랐습니다. 와, 작년에는 도둑질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은 차에서 가스 캡을 훔쳤습니다. 아마 가스를 넣을 때 취해서 가스 캡을 잃어버렸고, 정신이 나갔고, 마을에서 본 다른 코롤라와 같은 토요타 코롤라가 있었기 때문에 가서 그 사람의 가스 캡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연히 그 일에 대해 끔찍하게 죄책감을 느꼈던 걸 기억하지만, 그것을 되돌아보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지 않았을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제가 법을 어기는 생활 방식에 연루되었기 때문이라는 연관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규칙적으로 마리화나를 사용했기 때문에, 글쎄요, 몇 가지 법을 더 어긴다고 해서 뭐가 대단한 일인가요? 그래서, 그것은 제 엄마가 빵 한 덩어리를 잘랐을 때 한 조각도 놓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던 것과 비슷한 일이었습니다. 즉, 빵을 자르고 나면, 글쎄요, 또 다른 조각, 또 다른 조각, 또 다른 조각, 또 다른 조각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녀는 실제로 처녀성을 잃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맥락에서 그 은유를 사용했지만, 여기에도 적용되었습니다. 특정 한계에 도달하면, 글쎄요, 또 다른 무분별함, 그리고 또 다른 무분별함, 그리고 또 다른 무분별함이 무엇이고, 저는 그것이 저에게 효과가 있었던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의 주장과 관련하여 나쁜 회사의 주장이 있는데, 누군가가 마약 남용에 연루되고 이런 식으로 법을 어기면, 다른 불법 활동과 성격 타락에 실수로 연루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험할 수 있고, 심지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미시시피 주 잭슨에서 마리화나 공급이 고갈되어 우리 중 일부가 마리화나를 찾으려고 했던 적이 기억납니다. 저는 그곳에 살았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필사적으로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마리화나를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고,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특정 유통 지역의 책임자인 누군가의 집에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이 있는 누군가의 집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즉시 느꼈습니다 .

이 사람이 그 현장에서 가장 큰 사람 중 하나였고, 우리는 이 연결 때문에 위험에 처해 있었고, 저는 이 상황에서 빠져나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던 걸 기억합니다. 저는 위계에서 이 수준의 사람들과 연루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폭력이 즉각적인 선택이라는 걸 알았고, 제가 잘못된 말을 하거나 행동하면 제거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관찰하고 들은 특정한 것들에서 그걸 추론했을 뿐이고, 아마 옳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규칙적으로 법을 어기는 사람들과의 연결을 통해 어떻게 의도치 않게 상황에 빠질 수 있는지에 대한 예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회사는 당신을 부패시킬 수 있고, 나쁜 회사는 당신의 삶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에게 이 질문을 할 때 제가 종종 공유하는 몇 가지 고려 사항입니다. 이것으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마칩니다.

이것은 기독교 윤리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제임스 스피겔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7, 약물 합법화입니다.